

기 관	컨슈머인사이트	이 메 일	kimmh@consumerinsight.kr
문 의	김민화 연구위원	연 락 처	02) 6004-7643
배 포 일	2023년 10월 27일(금) 배포	매 수	총 4매

직접 가본 사람이 평가한 여행만족도 '경남 산청군' 첫 1위

컨슈머인사이트, 2023년 여름휴가 여행지 만족도(기초시군) 비교

- 산청, '실거리' '물가·상도의' '안전·치안' 등 높은 평가
- 영월, 순천, 평창, 경주, 고성 등 전통 여행지 5위권
- 톱10 중 6곳이 강원도...해안보다 내륙 지방이 강세
- '비용' 민감해져 물가 등 여행환경을 여행자원보다 중시
- 제주·서귀포시 대폭 하락...제주도 관광 위기 보여줘

경남 산청군이 여름휴가 여행지 만족도에서 전국 기초시군 1위에 올랐다. 강원 영월군, 전남 순천시, 강원 평창군, 경북 경주시, 강원 고성군 등 유명 여행지가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톱10 중 무려 6곳을 강원도가 차지했다. 작년 1위 하동군은 10계단 하락해 11위에 그쳤다.

□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16년부터 매년 9월 2만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'연례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 조사'에서 올해 1박 이상 국내 여름휴가(6월~8월)를 다녀왔다고 응답한 1만7281명에게 주 여행지가 어디였는지, 그 지역에 '얼마나 만족했는지(만족도)'와 '추천할 의향이 얼마나 있는지(추천의향)'를 묻고 종합만족도를 산출해 기초시군별로 비교했다.

□ 조사에서는 만족도, 추천의향과 별도로 각 지역의 '여행자원 매력도'와 '여행환경 쾌적도' 10개 세부 항목에 대해서도 평가토록 해 각 시도별 종합만족도 등락 원인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했다. 세부 비교 항목은 '여행자원 매력도' 측면 5개(△실거리 △볼거리 △먹거리 △놀거리 △살거리)와 '여행환경 쾌적도' 측면 5개(△청결·위생 △편의시설 △물가·상도의 △안전·치안 △교통)였다.

□ 해당 데이터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(NIA)의 빅데이터센터구축사업을 통해,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빅데이터플랫폼 마켓C www.bigdata-culture.kr에서도 공개되고 있다.

■ 산청, 작년 증위권에서 급상승해 1위

○ 올해 순위에 오른 56개 시군(사례수 60 미만 제외) 중 경북 산청군이 769점(1000점 만점)을 얻어 처음으로 1위에 올랐고 강원 영월군(762점, 2위)과 전남 순천시(760점, 3위)가 뒤를 이어 톱3를 형성했다[그림].

[그림] 2023년 국내 여름휴가 여행 종합만족도 (기초 시·군)

시·군 - 광역도	순위		점수(1,000점 만점)	작년 대비(점)
	23년	작년 대비		
산청군	경남	1 ▲31	769	+59
영월군	강원	2 ▲5	762	+13
순천시	전남	3 ▲24	760	+41
평창군	강원	4 ▲6	756	+15
경주시	경북	5 ▲1	753	+1
고성군	강원	5 ▲5	753	+12
인제군	강원	7 ▲10	752	+19
원주시	강원	8 ▲20	749	+31
남해군	경남	9 ▲20	744	+27
태백시	강원	10 ▲15	741	+20
하동군	경남	11 ▽10	740	-29
정선군	강원	11 ▲19	740	+24
동해시	강원	11 ▲1	740	+1
강릉시	강원	14 ▲2	737	+1
울진군	경북	15 ▲5	730	-1
홍천군	강원	16 ▲24	729	+30
서귀포시	제주	16 ▽14	729	-32
거제시	경남	18 ▽6	728	-11
양양군	강원	-	727	-5
황성군	강원	19 ▲14	727	+20
단양군	충북	21 ▽6	726	-11
속초시	강원	-	725	-4
삼척시	강원	22 ▽5	725	-8
통영시	경남	22 ▽14	725	-21
완도군	전남	25 NEW	724	NEW
전주시	전북	26 ▲16	723	+25
목포시	전남	27 ▲15	721	+23
제주시	제주	28 ▽25	719	-40
포천시	경기	28 ▲8	719	+17
여주시	전남	30 ▽5	717	-4
담양군	전남	31 ▽22	715	-27
57개시군평균			715	-1
울릉군	경북	32 ▽9	714	-14
문경시	경북	33 ▽28	713	-40
밀양시	경남	33 ▲14	713	+28
제천시	충북	35 ▲2	710	+10
무주군	전북	36 ▽32	707	-51
가평군	경기	37 ▲7	706	+10
청도군	경북	38 ▽26	704	-35
춘천시	강원	38 ▽14	704	-21
포항시	경북	40 ▽5	702	-2
부안군	전북	41 ▽20	699	-31
안동시	경북	42 ▽5	698	-2
영덕군	경북	43 ▲2	696	+4
군산시	전북	44 ▽13	693	-19
태안군	충남	44 ▲2	693	+3
사천시	경남	46 NEW	692	NEW
공주시	충남	46 ▽12	692	-14
진도군	전남	48 ▽1	691	+6
양평군	경기	49 ▽9	689	-10
충주시	충북	50 -	688	+23
용인시	경기	51 ▽2	686	+17
보령시	충남	52 ▽15	683	-17
과산군	충북	53 NEW	681	NEW
창원시	경남	54 ▽1	679	+38
예산군	충남	55 NEW	634	NEW
천안시	충남	56 ▽5	633	-11
청주시	충북	57 ▽5	626	-16

Q. 여름휴가 목적으로 다녀오신 여행지는 어디입니까?
 Q. 전반적으로 봤을 때 '주 여행지'에 대해 여행지로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?
 Q. '주 여행지'을(를) 여름휴가 여행지로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?

주) Base: 여름휴가 기간 1박 이상 국내여행자, 사례수는 '23년 17,281명, '22년 18,001명
 * NEW는 22년에 사례수 60 미만으로 순위권에 포함되지 않아 순위 Tracking이 불가능함
 * 출처: 컨슈머인사이트 '연례 여름휴가 여행만족도 조사'

○ 강원 평창군(756점)이 4위였으며, 경북 경주시와 강원 고성군은 올해도 공교롭게 동점(753점)으로 작년에 이어 공동 5위를 유지했다. 그 뒤로 강원 인제군(752점)과 원주시(749점), 경남 남해군(744점), 강원 태백시(741점) 순으로 톱10에 이름을 올렸다. 작년 1위 경남 하동군은 10계단 하락해 11위가 됐다.

○ 톱6 중 내륙 지역이 3곳(산청·영월·평창), 일부 해안을 포함한 내륙 지역이 2곳(순천·경주), 해안 지역이 1곳(강원 고성)으로 내륙 지역이 우세했다. 톱10 중에도 완전 내륙 지역이 6곳으로 해안 지역을 압도했다.

■ 제주시 -40점, 서귀포시 -32점 대폭 하락

○ 산청군은 올해 만족도와 순위가 모든 기초시군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(+59점, +31위)했다. 10개 세부 항목 중 쉼거리, 볼거리, 안전·치안, 물가·상도의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, 특히 놀거리를 제외한 9개 항목에서 점수가 상승했다.

○ 2위 영월은 볼거리, 쉼거리, 안전·치안 항목의 높은 평가에 힘입어 작년(7위)에 이어 톱10을 유지했고, 3위 순천은 먹거리, 볼거리, 안전·치안 평가가 높아 '21년(1위)에 이어 최상위권에 컴백했다.

○ 반면 작년 2, 3위였던 서귀포시(-32점, -14위)와 제주시(-40점, -25위)는 점수와 순위 하락폭이 매우 컸다. 공통적으로 물가·상도의회와 먹거리 항목 평가가 크게 하락해 여행지로서 제주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준다(참고. ["제주여행, 덜 가고 덜 쓰고...다시 가고 싶은 마음도 줄었다"](#)). 다만, 교통환경, 청결위생 등 여행환경에서 서귀포시가 우세했으며, 쉼거리, 볼거리 등의 여행자원 평가는 두 지역간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다.

■ 1~31위 점수 차이 53점으로 크지 않아

○ 1~10위 중 강원도 내 시군이 6개를 차지해 광역 시도별 여행지 만족도 2위를 차지한 국내 대표 여행관광지역의 저력을 과시했다(참고. ["여름휴가지 만족도 부산 1위, 강원 2위...제주도는?"](#)). 1~10위의 점수는 28점 차이, 11~31위까지는 25점 차이로 큰 격차는 없었고, 따라서 순위 변동도 심했다.

○ 강원도처럼 수도권에서 가까운 곳, 상대적으로 작은 비용과 예산으로 다녀올 수

있는 내륙 지역, 여행자원이 풍부한 곳보다는 여행환경이 편안한 곳 중심으로 여행심리가 이동하고 있다. 이는 물가·상도의, 안전·치안 등 여행환경 평가가 높은 지역이 최상위권으로 도약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. 여행자원의 매력 자체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여행환경의 쾌적도를 높일 수 있다면 단기간에 순위 상승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결과다.

컨슈머인사이트는 **비대면조사에 효율적인 대규모 온라인패널**을 통해 자동차, 이동통신, 쇼핑/유통, 관광/여행,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요구되는 **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리서치 서비스**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**다양한 빅데이터를 패널 리서치 데이터와 융복합 연계**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. 특히 최근에는 **100% 모바일 기반**으로 **전국민 표본 대표성**을 가진 조사 플랫폼 '**국대패널**'을 론칭하고 **조사업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**했습니다.

이 결과는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매년 9월에 여행소비자 2만 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'연례 여름휴가여행 만족도조사'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매년 업데이트되는 조사 결과와 분석 리포트는 www.consumerinsight.kr/leisure-travel에서 볼 수 있으며, 2017-2022년 조사 결과를 요약한 자료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 ([리포트 다운로드 받기](#))

Copyright © Consumer Insight. All rights reserved. 이 자료의 저작권은 컨슈머인사이트에 귀속되며 보도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

For-more-Information

김민화 컨슈머인사이트 연구위원/Ph.D	kimmh@consumerinsight.kr	02)6004-7643
남궁상 부장	namgoongs@consumerinsight.kr	02)6004-7693